

에펠탑·센느강...매년 900편 낚는 '지구촌 영화 수도'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4>

파리의 영화



파리 시내 오페라 극장에서 마들렌느 사원으로 뻗은 카푸신느 대로를 따라 5분쯤 걸으면 영화의 성지가 있다. 1895년 12월 루미에르 형제가 상업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한 그랑 카페는 현재 스크립트 호텔 내 '뤼미에르 카페'로 바뀌었다. 1 프랑스를 지배하고 카페의 인디언 살롱에 앉은 파리지역 30여명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두운 화면을 응시했다. '뤼미에르 공장의 출구', '기차의 도착' 등 이날 상영된 10편의 흑백 활동사진을 보며 관객들은 화면 속의 사물이 밖으로 나올 듯한 모습에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주최 측은 당초 언론사에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날 상영관에 나타난 기자는 없었다. 언론사의 무관심과 달리 신기한 새 오락거리는 파리지역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입소문을 타고 그랑 카페에 수천 명이 몰려 들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할 정도였다. 루미에르 형제는 이후 런던과 뉴욕 등 전 세계를 돌며 신드롬을 일으켰고,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세계 최초의 상업 영화 상영이 루미에르 형제보다 두 달 앞서 베를린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상영을 1년 앞두고 특허를 얻은 것이 이들 형제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최초 상영일과 주체를 제쳐 두더라도 상징성은 루미에르 형제에게 있다. 제 7의 예술로 불리는 문화와 산업, 예술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의 경계를 오가며 탄생 이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파리는 영화의 탄생에 요람이 돼주고 그 주도권을 할리우드에 넘겼지만, 영화는 파리에 대한 오마주를 멈추지 않았다.

파리 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 시내에서 940개의 크고 작은 영화가 촬영됐다. 3천707일 동안 파리 시내의 6천여 곳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평균적으로 매일 10팀의 촬영이 이뤄진 셈이다. 장편영화만도 130개 프로젝트가 1천278일 동안 진행됐다. 현재 파리시장 베르



매년 900편의 영화가 파리에서 촬영된다. 지난 6월 파리 4구에서 진행된 조엘 흄킨스 감독의 '펀치 러브' 촬영 장면.

■파리를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할리우드 영화들

제목(연도)	감독	내용
천사(1937)	에른스트 루비치	남안적인 파리에서 펼쳐지는 남녀의 사랑이야기
파리의 미국인(1951)	빈센트 미넬리	물랭 루즈 옥상에서 진 켈리와 레슬리 캐런의 포옹
스탠리 도넨(1963)	스탠리 도넨	레알과 팔레 루와얄을 거니는 오드리 헵번
실종자(1988)	로만 폴란스키	생 플로랑탱 기와 그르넬 다리의 묘사가 인상적인 스티븐
로닌(1998)	존 프랑켄하이머	센느 강변의 추격씬이 돋보이는 본격 액션
라타투이(2007)	브래드 버드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된 파리
휴고(2011)	미틴 스톨제지	1930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동화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상업 영화를 상영했던 그랑 카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무대였던 막심 레스토랑.

뤼미에르 형제 세계 첫 상업영화 상영

매일 10팀 이상 시내 곳곳서 영화 촬영

시, '시네마 미션' 영화산업 육성 지원

트랑 달라노에는 취임 이듬해인 2002년부터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시네마 미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편영화 제작 지원, 독립영화관 지원, 각종 축제 지원 등에 매년 1천만 유로가 쓰이고 있다.

프랑스 영화가 파리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도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할리우드 영화의 파리 사랑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전세계인이 에펠탑을 파리의 상징으로 기억한다면, 영화에 빛을 지고 있다 할 것이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들른 에디슨은 에펠탑의 매력에 빠져 상당한 양의 필름을 촬영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파리를 무대로 촬영된 할리우드 영화는 현재까지 800편이 넘는다.

20세기 초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를 담은 영상은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센느 강변을 걷는 연인은 웬지 더 다정해 보였고, 생 제르맹 데프레의 카페에서 책을 읽는 파리지역은 웬지 더 지적으로 보였으며, 심지어 몽파르네 다리의 거지조차 낭만적으로 보였다. 20세기 초라면 발터 벤야민이 말했던 '19세기의 수도 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시절이다.

1922년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날아간 독일인 감독 에른스트 루비치는 대표적인 파리 마니아다. 파리를 무대로 '러브 파레이드', '슬픔의 설계' 등 1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든 루비치는 "파라마운트의 파

리가 있고, 실제 파리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할리우드의 파리 사랑은 1950~60년대 블레이크 에드워드, 스탠리 도넨, 알프레드 히치콕 등 감독들에 의해 이어진다. 특히 스탠리 도넨의 '파니 페이스'와 '세레이드'는 팔레 루와얄 정원이나 샹젤리제 공원, 길거리, 지하철 등 파리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 관객들에게 파리에 대한 동경을 불러 일으켰다.

올 초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돼 30만 명을 넘겨 감쪽 흥행에 성공한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는 뽕속까지 뉴욕인 미국인 감독이 파리에 보내는 찬사다. 그저 그런 미국인 소설가 길은 약혼자 가족과 함께 파리 여행을 나선다.

파리에서 문학적 영감을 간절하게 바랐던 길은 자정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1920년대로 자신을 데려다 주는 마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난다. 마차가 인도한 막심 레스토랑에서 길은 피츠제럴드, 헤밍웨이, 파카스, 달리, 불루즈 로트랙, 마티스 등을 만난다. 1893년 문을 연 막심 레스토랑은 지금도 루와얄 가 3번지에서 영업 중이다.

등장인물들은 파리 인근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생가에 방문하고, 킬리리 공원 내의 오랑주리 박물관에서 모네의 '연꽃' 연작을 관람한다. 이들은 센느 강변을 산책하고, 생 투앙의 베희시장을 걷는다. 감독의 전매특허인 수다스러움은 여전하지만, 관객들은 시간을

넘나드는 매력적인 파리의 영상에서 그 괴로움을 덜어낸다. 영화에는 당시 현직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카롤라 브뤼니가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리에 대한 감독의 수줍은 사랑 고백인 이 영화는 우디 앨런에게 네 번째 오스카상(각본상)을 선사했고, 자신의 필모그래피 중 최고 흥행작이라는 말을 안겨줬다.

21세기에 가까워지면서 파리를 다루는 할리우드의 관점은 다양화됐다. 낭만적인 파리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등을 벗어나 '테이큰'이나 '인센션', '본' 시리즈 등 첩보물과 액션 영화에서도 심심찮게 파리가 등장했다. 예술의 도시 파리는 영화에 아름다운 영상을 제공하고 감독들에게는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태어난 영화는 다시 파리에 예술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씌워 관객을 매혹하고 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성필 객원기자
sphijjeong@gmail.com



홍스페이스 모던가구 & 이태리가구 모던가구 런칭 30% 특별가 판매, 혼수가구 환영!



78만원



4인셋 98만원



4인셋 175만원



2+2 198만원



www.hong79.com(홍천구닷컴)

www.hong79.com(홍천구닷컴)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1899-0240